S·M·A·R·T HYUNDAI Since 1947

Vol.331 http://news.hdec.kr

HYUNDAI E&C TODAY

2017/03/28/Tues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거대한 상상력을 품은 건축 오디세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Hyundai Motorstudio Goyang

News

우주선을 타고 거대한 우주를 유영하듯 자동차로 경험하는 여정 또한 근사하다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독창적인 비정형 외관은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 DMAA가 '천(Shaped Sky), 지(Landscape), 림(Vertical Green)' 세가지 콘셉트를 차용해 설계한 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그간의 시공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집약했다. 현대자동차의 비전에 그룹사의 시너지를 더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로, 건축물이 공간을 넘어 미학이 되는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 관련기사 6, 7면

The unique free-form exterior of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carries a delightful imagination: What if a visit to an automobile experience center is as cool as riding a spaceship? Delugan Meissl Associated Architects (DMAA) designed the building by using key design elements of the shaped sky, the landscape and the vertical green. To construct the landmark building, Hyundai E&C made an integrated use of its construction know-how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The Hyundai Motorstudio Goyaing will give a special chance for its visitors to see that automobiles are not only a means of transportation but a culture and that the specially designed building is not just a space but an art. ▶ Continued on page 6, 7

경영 투명성 제고로 백년대계 이룬다

전임직원 온라인 윤리실천 서약, 상담창구 신설 등 윤리경영 박차

"건설업은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 온 산업입니다만 최근 들어 투명성과 거리가 먼 비윤리적 산업군으로 분류하거나 미래 전망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 평판과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다시 한 번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건설이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신년사에서 정수현 사장이 강조한 것처럼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업계 맏형다운 면모를 보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현대건설이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힘을 쏟은 부분은 임직원 의식 함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그룹웨어를 통해 배포하고, 팀 세미나 및 대규모 집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 임직원이 온라인 서약을 하고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토록 하고 있다. 서약서에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적 윤리규범 및 정책을 준수하고,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하며,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매월 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ompliance Newsletter'를 발행해 ▶Compliance 기본 개념 ▶국내외 동향 및 사례 ▶건설관련 주요 법령 ▶청탁금지법 Q&A ▶당사 위반 사례 등의 내용을 전 임직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윤리·준법 상담창구'를 개설해 업무 처리 중 맞닿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익명 게시판 혹은 이메일을 활용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건설 계동 본사에서 열린 동반성장 결의대회에서 임직원 대표가 동반성장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아직도 위험 사례가 관행처럼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징벌을 통한 사후 대책보다 교육 확대나 상담실 운영 등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사전방지 캠페인에 더욱 주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o improve corporate transparency

Hyundai E&C is taking the initiative in stepping up an effort to seek compliance and ethics management and further increase transparency within the corporate culture. In his New Year's speech, CEO Jung Soo-hyun expressed his strong will to get rid of negative perceptions toward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erve as a driving force behind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sector.

In line with this, Korea's primary builder will give a top priority to modify the mindset of its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s a first step, starting in February, the builder distributed its own educational video in the groupware application. Hyundai E&C recently began to encourage all the employees working at the headquarters and the construction sites at home and abroad to take a pledge online and take part in an ethics management campaign. The campaign pledge calls for the employees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nd related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fair trade, prohibit unfair common actions and develop a corporate culture for win-win growth.

On top of this, the company is planning to be committed to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ethics management in a bid to preemptively prevent unfair corporate practices. To this end, the builder will publish the "Compliance Newsletter," an in-house newspaper, at the end of every month and share information about basic ideas of compliance, domestic and foreign trends and examples, construction-related laws including the new anti-graft law, and examples of legal violations by Hyundai E&C.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1
2017/03/28/Tuesday

힐스테이트에 첨단·힐링·공유 더한다

현대건설, '2017 힐스테이트 스타일' 발표

우리 회사가 힐스테이트만의 특별한 상품 전략을 발표하고 고객 만족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리 회사는 최근 '2017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발표하고 올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단지에 신규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힐스테이트 스타일'은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적용해 고객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첨단(High-Tech)' ▶감성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는 '힐링(Healing)'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 생활을 제안하는 '공유(Hub)' 등 세 가지 콘셉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숲길과 산책로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H+IoT 합성어)는 기존보다 향상된 음성인식 기능을 선보일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외부에서 집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성만으로 가전제품이나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 출입 시스템' 역시 올해 분양하는 모든 힐스테이트에 적용돼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세대현관 출입과 승강기 호출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지마다 1~5㎞의 다양한 숲길과 산책로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카셰어링·중심 텃밭(Farmers market)·다목적 폴리(Folly) 등이 도입돼 공동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2017 힐스테이트 스타일'은 첨단기술 적용으로 입주민의 편의는 물론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라며 "사업지 특성과 지역에 맞는 특화 아이템을 개발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5년부터 힐스테이트 스타일을 적용해 '교육·안전·편의'(2015년), '환경·건강·관리'(2016년)를 콘셉트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해 왔다.

Hyundai E&C announces "2017 Hillstate Style"

Our company recently announced the "2017 Hillstate Style." It will be gradually applied to Hillstate apartment complexes to be put on the market this year. The 2017 Hillstate Style focuses heavily on three elements including High-tech, Healing and Hub. The Hi-oT, a home network system developed by Hyundai E&C last year, will feature more improved voice recognition functions compared to its first version. By using their smartphones, residents of Hillstate can check what is happening at home from outside of house and control home appliances and systems only with their voices. The "smartphone entry system,"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will be offered to all the Hillstate units to be sold this year. The system enables residents to pass a building gate and a front door only by carrying their smartphones.

In addition, various trails 1 to 5 kilometers long will be built in each apartment complex of Hillstate, serving as a pleasant rest area for residents. Our company also provides a car sharing service, vegetable gardens named Farmers Market and multipurpose follies which are expected to breathe new life into the community culture of Hillstate residents.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수주

우리 회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2일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를 수주하며 이란 재진출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1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톤박(Tonbak) 지역에 위치한 가스전인 사우스파(South Pars)에 에틸렌(100만t/年産), 모노 에틸렌글리콜(50만t/年産), 고밀도 폴리에틸렌(35만t/年産),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35만t/年産) 등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5년 이란에서 사우스파 4, 5단계 가스처리시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17 해외건설대상' 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2017 해외건설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해외건설대상'은 국내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이 후원하는 상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은 마리나베이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0~34층에 이르는 총 4개 동의 복합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로,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도 높은 비정형 건축물을 시공해 한국 건설의 위상을 높였다.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 iF 디자인상 수상

현대자동차의 '현대 산스(Hyundai Sans)'와 '아이오닉 일렉트릭 홈 충전기'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2017 iF 디자인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체 부문 본상을 수상한 '현대 산스(Hyundai Sans)'는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을 시각화한 전용 서체로, 부드러운 곡선과 세련된 직선이 조화를 이뤄 균형잡힌 가독성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 디자인 수송 부문 본상을 수상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홈 충전기' 역시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에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창의성을 표현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목을 받았다. iF 디자인상은 레드닷,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품질관리자 워크숍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안양 블루몬테에서 '2017 현장 품질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현장 품질관리자 및 본사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품질관리계획서 실무 ▶용접 품질관리 & ITP(Inspection and Test Plan) 실무 ▶2017년 품질관리 운영 전파 ▶가설 기자재 시공 품질관리 방안 ▶콘크리트 시공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조별 분임토의를 통해 회사 현장 이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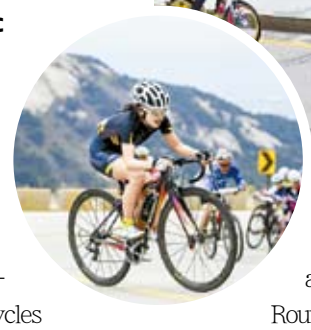
마지막 날에는 참석자 전원이 품질혁신을 통해 ▶국가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조성에 초석이 되고 ▶고객만족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품질향상 선포식'을 진행했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1
2017/03/28/Tuesday

Bicycle enthusiasts have growing number of travel opportunities

Mar 11

With temperatures slowly going up, activities such as cycling are slowly starting to pick up as people make their ways outdoors. These days, people travel out to different regions across the country to ride a bike and enjoy different scenery. Below are some of the options for both avid cycling fans and those wanting to get themselves a new hobby in the new season.



Ride somewhere exotic

Korea Railroad Corporation is luring bicycle riders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rough its introduction of special train travel packages which will allow passengers to bring their bicycles aboard the train. Passengers can get on from Seoul, Cheongnyangni and Yeongdeungpo stations in Seoul, and will be taken to major travel destinations such as Gangjin, Yeosu, Muan, Naju, Sinan and Mokpo.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bicycle packages, call (061) 242-7728.

Sinan County (www.shinan.go.kr) in South Jeolla has been popular among bike riders. The county has established eight different bicycle routes. Routes 2 and 5 are considered as the most scenic ones. Route 3 is also special in the spring as it takes riders to a field filled with tu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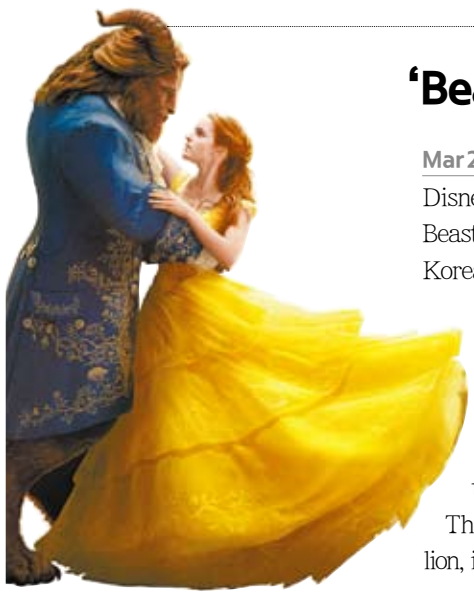
Ride to work and back hom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bike rental system called Ttareungi. The booths are usually located close to subway station exits so that Seoul citizens can ride a bike when they are going short-distances. They can also return their bikes to any booth nearby. A one-year membership only costs 30,000 won ($25.91) and allows members to rent out bicycles whenever they want. Renting for just one day is 1,000 won.

Go for competitions

The Hwacheon DMZ Peace Bike Rally (www.dmzbike.com) is one of the hottest bicycle events in Korea, as a portion of the course run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takes place on May 21. Although the festival is currently fully booked, spots may open up if people cancel their reservations. For those looking for a race, the f1 track in Yeongam, South Jeolla is the place to go. The stadium has been used for bicycle races for the International F1 Speed Cycling event, which takes place this year on April 23. A little bit farther south, riders can find another festival called the Olle Velo Jeju 2017 Road Hill Festa, set for April 1 on Jeju Island. For a real uphill challenge, join the Hana Tour 2017 Goseong Misiryeong Hill Climb Competition set to happen on May 28.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events, go to www.thebike.co.kr.

By KOREA JOONGANG DAILY



‘Beauty and the Beast’ smashes box office records

Mar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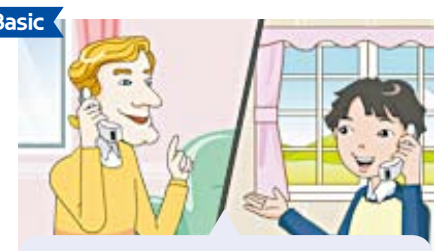
Disney’s live-action “Beauty and the Beast” was a beast at the box office in Korea. The film, starring Emma Watson as Belle and Dan Stevens as the Beast, felled many records. It’s the year’s top opening so far and a new best for March releases, and it ranks seventh all-time, not accounting for inflation.

The film, made for about $160 million, is the latest effort by Disney to recreate one of its animated classics with live action and digital effects. Many more are on the way, too, including those for “Dumbo,” “Mulan,” “Aladdin” and “The Lion King.” “Nostalgia is a very powerful driver for these films,” said Dave Hollis, head of distribution for Disney. “Beauty” found widespread acclaim and some backlash for including what has been called Disney’s first openly gay character. Josh Gad plays Gaston’s sidekick, LeFou, who has a very brief “exclusively gay moment,” as director Bill Condon described it, late in the film. None of that dragged down the movie’s massive opening. It took in $180 million overseas, including $44.8 million in China, Disney said. “Beauty and the Beast,” featuring the songs by Alan Menken and Howard Ashman, also got a boost from good word-of-mouth and largely good reviews.

By KOREA JOONGANG DAILY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How do you ask someone to wait a moment during a conversation?

“잠깐만요.”

Situational context

Yeong-min is asking Michael whether he has a map of the U.K. on his phone. Michael needs a moment to find the map, so he wants to say ask for some time to look. At this point, he can say, “잠깐만요.”

Dialogue

영민	마이클 씨, 혹시 영국 지도 있어요? Michael ssi, hoksi Yeongguk jido isseoyo?
마이클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jamkkanmannyo. chajabolkkeyo.
Yeong-min	Michael, do you have a map of the U.K.?
Michael	Just a minute, please. Let me check.

One more expression

‘잠깐’means a short moment, you can use it in “잠깐만 기다리세요.”(Please wait a moment) or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Shall we talk for a moment?)

Intermediate

How to say,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Situational context

Su-mi says good-bye to her coworkers, because she is going on a business trip to a local area. Michael worries about her going alone, so he wants to say if she needs help, then she can let him know. At this point,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Dialogue

수미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chuljang danyeoogesseumnida.
마이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jal danyeooseyo. geurigo museun il isseumyeon yeollakaseyo.
Su-mi	I’m going on a business trip.
Michael	Take care. And, please contact me if anything happens.

One more expression

You can also say,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or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to express that if somebody needs help, they can contact you.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Group News

Hyundai Motor Design Flair Granted Coveted iF DESIGN AWARD

Hyundai Motor has claimed two awards in the acclaimed iF DESIGN AWARD 2017, winning categories for its new corporate typography and stylish electric vehicle charger. The ‘Hyundai Sans’ font won the Typography/Signage category as judges praised its warm and confident form, while the ‘IONIQ Home Charger’ impressed with its clean, intuitive design. All award entries are featured in the iF World Design Guide, and are displayed at the iF design exhibition in Hamburg.

Hyundai Motor Unveils New Sonata in Korea

Hyundai Motor unveiled its updated Sonata model on March 8, showing the flagship sedan for the first time at the design-focused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The new Sonata builds on the success of previous generations of the car while introducing a number of dramatic design changes that are aligned with Hyundai’s evolving design philosophy. This progressive design approach results in a bolder, more sophisticated exterior, with precise lines and distinctive styling cues that reflect Hyundai Motor’s latest design language. The new Sonata will also continue the model’s strong reputation for performance, with driving dynamics coupled with an unsurpassed suite of advanced safety offerings. The new Sonata will be available in select markets by mid-year.

창립 70주년을 맞아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톱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산1호터널

마포아파트

④1960년대 국내 프로젝트(III)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재개발사업을 비롯 1960년대 후반 장대교 시장 독점… 국내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해

최초의 아파트, 마포아파트

196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 이 무렵, 현대건설은 건축부문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보강했다.

대표적인 공사가 바로 마포아파트다. 1961년 10월 착공한 마포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6층짜리 10동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마포아파트 공사는 주택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널리 이용되지 않던 구조였다. 그때문에 1960년대 초반 이와 같은 시공 경험을 한 것은 후일 귀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1

1966년 9월부터 약 1년간 지은 세운상가아파트는 서울시의 첫 번째 도시재개발사업이었다. 세운상가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대형 복합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였다. 이듬해 착공한 힐탑외인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11층 건물 1동으로 건축자재 대부분과 급수·위생·난방·전기자재 등을 일본에서 도입한 공사다. 일부 일본 자재 중 설계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아 공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신 규격의 자재는 기술적으로 낙후된 한국 건축업계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됐다. 이때의 시공 경험과 기술은 그 후 고층 건물을 시공하는 발판이 됐고, 최신 장비를 동원함으로써 건축공사의 기계화를 가져왔다.

문화방송 사옥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한 역작이다. 애초 문화방송은 인사동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대폭적인 확장이 필요해 1967년 10월 중구 정동에 18층 높이로 새롭게 들어섰다.

현대건설은 1960년대 중반 전력사업뿐 아니라 시장 확대 일환으로 통신·전화 분야에 진출했다. 이 시기 현대건설은 부산 초량전화국·노량진전화국·진주 남강전화국·서울타워 등을 짓는다. 1969년 시공한 서울타워는 국내 통신시설의 핵심이었다. 국내 각 방송 전파를 송신하는 종합송신탑과 관광전망대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타워는 탑 꼭대기가 해발 497.7m로 1975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고의 높이를 자랑했다. 이 공사는 산 정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됐고,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시공 방법이 요구됐다. 현대건설은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일로 공법을 이용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형 탑신을 축조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당시 이 탑은 '남산종합송신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1974년 10월 '서울타워'라는 공식 명칭으로, 1981년 10월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 됐다.

남산 1호터널은 삼일로와 한남대교를 연결하는 터널로 1969년 착공했다.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누수방지공사의 작업 순서가 바뀌어 심각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완공 후 터널의 좌우측에 다시 내벽을 막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 터널에는 국내 처음으로 완전한 조명설비와 반황류식 환기설비가 구비돼 있다. 터널 중간부분에는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60럭스의 전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시공한 양화대교

현대건설은 1960년대 후반의 장대교 시장을 독점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수주한 거제교·강화교·한남대교(당시 제3한강교)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서울대교·잠실대교·남해대교 등을 준공했다. 이 중 양화대교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시공한 최초의 다리다. 길이 1048m, 폭 18m의 4차로 교량인 이 다리의 건설에는 일일 평균 13명의 직원과 150여 명의 기능공이 참여했는데, 연간 투입된 인원으로 보면 무려 17만 명에 이르는 수치다.

거제도를 육지에 연결하는 거제교는 1965년 착공해 6년2개월 만에 완공했다. 완도·강화·안면도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건설된 연륙교로, 국내 최초로 '공기 케이슨 공법'이 쓰였다. 이 공법은 잠함 밑에 작업실을 만들고 그 속에 압축공기를 보내 물을 배제하고, 대기 속에서와 같은 상태에서 굴착하는 특수 기술이다. 수심이 깊고 지반 지질의 깊은 곳까지 점토층이 있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했는데, 이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발전기·선박 등 각종 보유장비를 총동원했다.

1968년 착공한 남해대교는 교량건설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공사였다. 당시 기술감독관이나 현대건설의 기술자가 현수교 건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다리 밑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전투가 있었던 노량해협으로 물살이 매우 거세 난항이 예상됐다.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공수할 수 없었던 230톤급 해상기중기, 1200마력의 예인선 등 총 19종 118점을 일본에서 들여왔다. 현대건설 직원들은 설계도면을 철저히 익히고 전문서적을 구해 읽는 등 현수교 가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해 시방서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박스형 장대교 최신 공법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남해대교를 완공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강 지류에 위치한 원효교(1962년 착공), 서울과 강화를 잇는 강화교(1965년 착공), 한남대교(1966년 착공), 마포대교(1968년 착공) 등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시공해 교량건설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발휘했다.

2

1 해상 크레인을 직접 설계·제작해 사용한 남해대교. 2 제2한강대교라 불리기도 한 양화대교가 완공된 모습. 3 6년2개월에 걸쳐 완공한 거제교.

④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1960s (III)

The economies of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grew at a rapid pace at the end of 1960s. Combined with a rapid growth in commercial, financial and education sectors, an investment in private facilities was expanded. Around the time, Hyundai E&C changed its business strategy to put a balanced emphasis on the existing civil engineering business and new building works, and increased the number of technical workforce in the division of building works.

As part of the new business strategy, Hyundai E&C started the construction of the Mapo apartment complex in October 1961. The complex is Korea's first apartment complex consisting of 10 six-storey buildings. It marked the beginning of a revolution in the 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country.

3

Later, construction-related experience and technology amassed from the extensive projects conducted by Hyundai E&C helped the company lay a solid foundation in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Korea's primary builder contributed to the acceleration of mechanization in the area of building construction by introducing state-of-the-art construction equipment.

To expand the market, Hyundai E&C tapped into not only the power generation market, but communication projects in the mid-1960s.

Hyundai E&C took the sole lead in the construction of long-span bridges in the 1960s.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builder received the orders to construct the Geoje Bridge, the Ganghwa Bridge and the Hannam Bridge called the Hangang Bridge No. 3 at that time.

For the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compan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 Bridge, the Jamsil Bridge and the Namhae Bridge photo 1. Among them, the Yanghwa Bridge photo 2 was the country's first bridge that was built based on Korea's own technolog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designing to construction. Hyundai E&C began the construction of the Geoje Bridge photo 3 in 1965 and completed it in six years and two months. To build the bridge connecting Geoje Island and the peninsula, the company adopted the pneumatic caisson method,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25%가 실력이고 75%가 팀워크다." 만년 꼴찌였던 미식축구팀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우승으로 이끈 명감독 딕 버메일의 말이다. 위기의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 그리고 협력. 이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2017 핵심가치 팀세미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봤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2017 핵심가치 팀 세미나 현장 취재

"행복한 일터? 소통과 협력이 기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가치를 팀 단위까지 내재화하기 위해 2012년 첫 시행된 '핵심가치 팀 세미나'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 핵심가치 팀 세미나 주제는 '핵심가치 기반의 자율과 소통 팀 문화 구축', 즉 '소통과 협력'이다.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팀 세미나는 본사 177개 팀, 196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본사 전 팀 소통 진단 ▶팀장 대상 교육 확대 ▶팀장 담화 등 우리 회사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신설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 팀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팀장들은 사전에 진행한 팀장 세미나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듣고, '팀 소통 진단' 설문 결과를 통해 팀의 이슈를 미리 파악했다.

인사실 담당자는 "팀 세미나에 참석한 팀장들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 실천 키워드(스마트한 도전, 함께하는 성장) 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팀장 담화 시간을 마련해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일차 우리 팀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3월의 어느 날, 〈사보신문〉이 핵심가치 팀 세미나가 한창인 충청남도 서산농장 아산연수원을 찾았다. 장시간의 이동으로 피곤했지만, 평소보다 캐주얼한 복장과 푸른빛의 서산 바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여독을 빠르게 풀 수 있었다.

핵심가치 팀 세미나의 시작은 팀원 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었다. 팀원들은 "나는 ○○○한(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문장이 적힌 52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골랐다. "나는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지켜 나간다" "나는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 그 덕에 강의실은 화기애애한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리자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그래프로 나타난 영역별 진단 결과를 통해 팀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팀장과 팀원 간, 시니어와 주니어 간 의견차가 크게 나는 부분을 보며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우리 팀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골똘히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1일차에는 세미나 과정 외에도 저녁 식사와 함께 팀별 캔미팅 시간이 마련됐다. 업무시간에는 나눌 수 없었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팀, TV프로그램에서 나온 순발력 게임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팀 등 주어진 시간을 적극 활용하며 소통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일차 허튼 퍼즐 조각은 없다

1일차에 우리 팀의 해결 과제에 대해 알아봤다면, 2일차에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날의 캔미팅 덕분인지 2일차 세미나는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팀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이 교환됐다. 각 팀은 핵심 과제에 따라 '논점 토의'를 하거나 '실행 계획'을 세웠다. 활동은 달랐지만 모두 우리 팀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었다. 팀원들은 업무 전반에서 소통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또 1박2일간 느꼈던 점과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팀워크를 다졌다. 팀장은 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 반드시 필요한 '소통과 협력!'
> 팀원들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 못 해낼 것이 없다.

팀 세미나에 참여한 안전기획팀 이종문 대리는 "각자의 애로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소통과 협력이 더욱 원활해진 우리 팀의 내일이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 인프라환경지하공간설계팀 김영호 대리 역시 "'소통과 협력'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팀 세미나였습니다. 소통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팀원들이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못 해낼 것이 없다. '소통과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팀원 저마다의 역량을 모으고 맞춰 간다면 '현대건설의 미래'라는 큰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소통과 협력의 장애물을 파악한 감사3팀 팀원들의 표정이 밝다. 2, 4 1박2일간 진행된 팀 세미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3 팀워크를 보여준 활동. 팀원과 함께라면 못 해낼 것이 없다.

MINI Interview

"팀원 모두가 머리 맞대면, 해결 못할 일이 없죠"

회계관리실 세무팀

Q 팀 세미나에 참석한 소감은?

업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함께하니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팀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팀원이 '소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았고, 팀장은 팀원에게 먼저 다가갔다. 팀 세미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Q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눴나.

세무팀은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는 팀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었을 때 나온다. 또 업무 특성상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우리 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공유 회의'와 '공유 폴더 활성화'라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또 팀 세미나에서처럼 개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Q 이번 팀 세미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팀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어 유익했다. 특히 업무에 복귀해 세미나 수행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이 만족스럽다.

Q 올해 우리 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우리 팀의 올해 목표는 '선제적 대응'이다. 우리 회사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다면 외부보다 먼저 파악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세무팀 본연의 업무인 '절세 방안'에 대해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 사업부와 현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S·M·A·R·T HYUNDAI Since 1947

독일의 세계적인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이 진정한 '명품'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현대자동차의 비전과 미래표준모델을 제시하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명품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우리 회사의 세계적 기술력과 그룹사 시너지를 더해 '한땀 한땀' 지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 이노션

기술 집약으로 일군 혁신적 공간, 작품이 되다

1

현대자동차의 꿈과 미래를 담다

서울에서 차로 30여 분,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 방향으로 들어서면 이색적인 외관의 건물이 시선을 빼앗는다. 거대한 금색의 캐노피 지붕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고, 지붕을 떠받치는 외벽 유리는 유난히 투명해 마치 금색의 우주선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유리벽, 지붕, 지붕 위의 타워 등 각기 다른 요소들이 절묘하게 배치된 이 독특한 비정형 건축물이 바로 올봄 개관 예정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이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우리 회사 및 타 그룹사가 함께 빚은, 그룹사 시너지가 빛나는 역작이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새로운 랜드마크를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4층 고객 주차장,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의 서비스센터, 지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차량 전시장 및 체험시설, 지상 5층부터 9층까지의 업무시설 등을 포함해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공간을 계획했다.

건물 자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독창성을 갖추기를 원했다. 2012년에 디자인이 선정되고, 2013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해 2017년 3월 개관을 앞두기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건축은 현대자동차와 우리 회사 모두에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도전이었다.

연구개발본부와 사업본부의 기술 협업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술적 시도, 건물의 디자인과 안정성 동시에 충족 현대자동차와 우리 회사가 함께 빚은 역작

2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설계를 담당한 세계적인 건축회사 DMAA의 마티 요스트 대표건축가는 건물의 콘셉트를 '천(天), 지(地), 림(林)'으로 잡았다. 하늘과 땅, 숲을 디자인 형태로 차용해 공간을 계획한 것이다. 복합시설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공간 및 콘셉트에 따라 구조와 외벽이 저마다 달라 한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 두세 채를 짓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단연 'Shaped sky'다.

기둥 없이 지붕이 뻗어 나온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의 캐노피, 'Shaped sky'는 철골 구조 공사에 10개월, 패널 마감 공사에만 1년이 소요됐다. 비정형의 구조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조 검토 및 새로운 시스템과 디테일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시공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D BIM 모델링 기법도 활용했다. 'Shaped sky'의 외관은 현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통일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대리점 간판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GDSI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패널을 3mm 두께의 외장재용 알루미늄 솔리드로 새로 제작했다. 미세한 차이로 이색(異色)이 발생하는 재료 특성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검증과 샘플 제작 끝에 이색 없이 건물의 시그니처 요소를 표현할 수 있었다.

숲을 구현한 전시장 내부의 중심 '버티컬 그린'도 여느 건물에서는 보기 힘든 공간이다. 지하에 나무를 심어 지상까지 관통하도록 하고 유리벽을 세웠는데, 구조 검토와 더불어 식재할 나무의 종을 선정하는 데 2년여가 걸렸다. 디자이너 및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운반, 검역,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했다. 조경 담당 직원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높이가 18m에 육박하는 대형 야자수와 대나무를 식재했다.

'Shaped sky'가 부양하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 유리 커튼월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를 고정할 금속 프레임마저 없애고, 투명도가 뛰어난 고성능의 저철분 유리를 전시장 전체에 적용했다. 건물의 각 요소를 뜯어볼수록 심혈을 기울인 현장의 노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3

4

5

1 우주선이 비상하는 듯한 감각적인 외관의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2 투명도가 뛰어난 유리 커튼월. 3,4 지하부터 지상까지 관통하는 대나무 숲, 버티컬 그린. 5 Shaped sky 아노다이징 패널 마감 작업.

'Best of Best'를 향한 기술 집약과 그룹사 시너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현장은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공사 초기부터 다양한 기술적 난제에 맞닥뜨렸다.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개발본부와 사업본부의 기술 협업이 빛을 발했다. 단발성 기술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번 현장이 첫 사례다. 그 결과 터 파기부터 외장 재질까지 기존의 공법이나 재료가 변경 없이 적용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다. 새롭고 다양한 기술적 시도 덕분에 건물의 디자인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현대종합설계, 이노션 등과 우리 회사가 함께 그룹사 시너지를 발휘했다는 점 또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이 갖는 큰 의미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깃든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실 및 관재팀을 신설해 운영까지 고려한 시공관리를 했고, 이노션은 현대자동차가 지향하는 '모던 프리미엄'에 부합하도록 감각적인 전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대종합설계는 설계 변경 등 갖가지 변수에도 신속하게 대처해 경영진의 의도와 사용자의 니즈를 빠짐없이 현장에 녹여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요소만 모아 탄생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드러내는 글로벌 홍보 공간을 넘어 자동차 테마 클러스터를 구축할 고양시의 랜드마크로도 우뚝 설 전망이다. 그 화려한 무대에 우리 회사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할 기술력을 입증해 냈다.

INTERVIEW

"해외 전문가들도 놀란 기적, 우리가 해냈죠"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설계한 DMAA社의 전문가들은 현장을 찾아 "각종 변수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기적은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는 현장 직원들의 소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장 직원들은 공사 기간 내내 밤낮 없이 뛰어준 동료들과 협력업체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Q 간단한 경력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재환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금강산 면회소와 고양체육관 등 특수 건축 현장에 주로 근무했고, 현대자동차그룹 편입 후에는 여수 엑스포 현대자동차 그룹관 등을 담당했습니다. 착공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대우(이하 이 부대) 청와대와 청계천 문화관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본사에서 9년 정도 근무하고 공사 초기부터 이곳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공무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영민 부장대우(이하 나 부대) 아파트 현장에 15년 정도 근무했고, 이번 현장에서 전기통신 설비를 담당했습니다.

김수택 부장대우(이하 김 부대) 이전에 6~7개 현장에서 설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본사 근무 기간도 10년 정도 됩니다. 이곳 직전에는 코엑스 리모델링 현장에서 인테리어 설계를 맡았습니다.

Q 그룹사 간의 합작품이고, 특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더욱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현장소장 자동차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활용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합니다. 우리 현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서비스센터와 상층부 업무 공간은 각 분야 디자인 전문가 및 서비스·설계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짓겠다는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의지가 강했죠. 의사 결정도 오래 걸렸고 변경도 많았습니다.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전기 설비나 배관 등이 달라지니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 부대 전시장 바닥 플로어 박스(전원 공급시설) 시공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대형 차량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플로어 박스가 필요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어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독일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방문해 샘플링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공에 들어가자 콘크리트 타설, 매립, 셀프 레벨링 등 공정마다 시행착오에 부닥쳤습니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이 부대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공법과 재료가 혼합돼 있어 안전 및 품질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 공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조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이 생겼죠. 특히 Shaped sky 패널은 독일 설계사들도 색상을 통일시키기 힘들다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시공돼 정말 다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굉장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김 부대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 기존의 외주 시공업체 인력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죠. 인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품질 또한 더욱 꼼꼼하게 신경 써 검토했습니다.

Q 소감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장소장 '작품'을 만들겠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소장으로서 직원들을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이 부대 개관이 정말 기다려집니다(웃음). 너무나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 부대 저는 협력업체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이 바뀌는 등 계약했던 작업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사하게 됐는데 협력업체가 우리 회사를 믿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 부대 우리 직원들과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로서의 디자인을 다루었죠. 여러 브랜드와 더불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등장하더군요. '우리 건물도 그 가치에 부합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공사 과정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우리 회사에서 짓는 모든 건물에 최고의 가치를 담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영민 부장대우, 김재환 현장소장, 이재용 부장대우, 김수택 부장대우(왼쪽부터).

Hyundai Motorstudio Goyang

Dream and future of Hyundai Motor Company in a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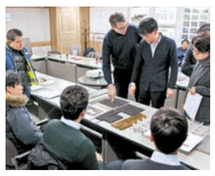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is considered as a masterpiece created jointly by Hyundai E&C and Hyundai Motor Company. With its presence increasing in the global auto market, Korea's largest automaker had a need for a new landmark to promote its brand identity.

The design of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was selected in 2012. The construction began in May 2013 and is slated to open in spring 2017. Throughout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project has been an unprecedented challenge for both Korea's primary builder and Hyundai Motor Company.

New, unprecedented challenges

Martin Josst from Austria's Delugan Meissl Associated Architects (DMAA) in charge of the innovative design chose the shaped sky, the landscape and the vertical green as key design elements of the building.

Hyundai E&C used the 3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method to minimize error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What the project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was the exterior named the "shaped sky." To achieve unity and symbolism, Hyundai E&C utilized the same design with that of the signs of Hyundai Motor dealerships and redesigned aluminum anodized panels into 3-mm exterior aluminum solid panels. Even slight changes might cause the color of the panels to look all different. Nevertheless, Hyundai E&C's attempts at a number of tests and sample fabrications enabled the builder to bring out the signature elements of the building by obtaining the same, uniform color.



The "vertical green," the center of the showroom modeled on forest, is a space rarely seen in ordinary buildings. The builder conducted an in-depth discussion with the designer and the management of Hyundai Motor Company about the transportation, quarantine inspection and management of trees used to build the green area.

To maximize openness of the building, Hyundai E&C decided to remove metal frames holding the glasses in place and instead made use of low-iron, highly transparent glasses.

Technology-intensive synergy effect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project faced various technological challenge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due to its structural peculiarity. For best results, several changes in the design were made. Amid the challenging environment, technical collaboration between R&D Center and Division of Building Works shone through. Although one-time technical assistances were made in the past,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wo divisions maintained technical cooperation throughout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the affiliates of Hyundai Motor Group including Hyundai E&C, Hyundai Motor Company, Hyundai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and Innocean created a great synergy effect. Korea's biggest automobile experience center will be not only a Hyundai Motor brand showroom conveying its significant global presence, but a landmark of the Goyang-si automobile cluster under way. In this process, the Hyundai Motorstudio Goyang contributed Korea's primary builder to demonstrate its technical capability and further solidify it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르네상스 전과 후의 예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예술가의 존재다. 그 이전의 예술가들은 '장인'으로만 기억될 뿐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르네상스 초기에 들어서 장인들은 위상을 지닌 독보적 예술가로 진화했다. 그 선구적인 인물이 브루넬레스키다. 그는 동시대부터 지금까지 건축과 기술, 예술을 아우르는 전인적 예술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글=남성택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사진=위키미디아

돔 건축으로 르네상스를 창시한 엔지니어, 브루넬레스키

예술가이자 기술자 그리고 건축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건이 있다.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하 대성당)의 돔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 바로 돔을 완성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다. 지금까지 건축가로 명성을 떨치는 그는 원래 장인이자 조각가였다. 추후 다방면의 예술 분야에서 업적을 나타낸 그는 다음 세대 예술가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선구자적 모델이 된다.

브루넬레스키가 단지 거대한 건축을 완성했다는 이유로 오래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성의 회복, 기술 발명, 공간 재현 수단으로서의 원근법 제시 등 그의 업적은 20세기 초까지 서양 예술을 지배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랍다.

예술의 고전성 회복과 신기술 발명

브루넬레스키는 건축과 무관한 금 세공 길드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조각 때문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세례당의 대문을 장식할 청동 부조 공모전에 참여했다. 이 공모전에서 그는 로렌초 기베르티와 더불어 결선에 오른다. 두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심사위원들은 고민 끝에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에게 공동작업을 권고했다. 그러나 브루넬레스키가 제작을 거부하면서 기베르티가 최종 작업자로 선정됐다. 브루넬레스키는 결선 진출만으로도 주목을 받았으나 피렌체를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로마였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영광을 잃은 문명의 폐허였다. 브루넬레스키는 고대 로마의 건축 유적 현장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건축과 구축 기술을 공부했다. 주류와 타협하지 않고 고전 전통을 선택한 그의 고집은 결국 미래의 자양분이 됐다.

그의 건축은 그리스·로마시대에 발전했던 고전적 비례와 규칙, 단순성, 기하학적 질서를 담고 있다. 1419년 설계 의뢰를 받아 완성한 피렌체 보육원의 광장 회랑(로지아) 입면이 대표적이다. 10개의 회랑 기둥들은 9개의 반구형 돔 천장을 떠받들고 있다. 기둥의 간격이 기둥 높이와 동일해 각기 정육면체 공간을 형성한다. 기둥과 아치, 수평보 등 각 요소들은 정확한 비례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다. 보육원이 건립되자 이 건축방식은 광장으로까지 확산됐다. 무질서했던 도시 공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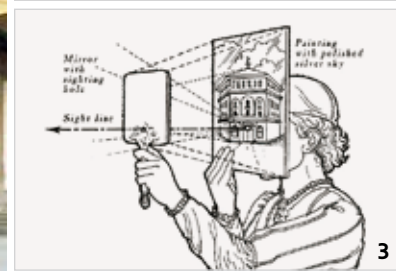
보육원 회랑 천장 작업은 피렌체 대성당 작업보다 조금 앞서 진행됐는데, 브루넬레스키는 이 작업에서 돔 시공을 테스트했다. 피렌체 대성당은 13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졌으나 지붕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미완의 대성당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는 고대 로마의 판테온 신전에 필적할 크기의 돔이 필요했다. 그러나 판테온의 콘크리트 기술은 시행된 지 오래였고, 지름 42m가 넘는 덮개를 어떻게 구축할지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돔 건설에 치명적이었던 문제점과 브루넬레스키의 해결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렌체 대성당의 천장 형태는 원이 아닌 팔각형이었다. 천장 벽체는 높이가 53m에 달했다. 게다가 벽체 상단부가 정팔각형의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 있었다. 돔 건설에 치명적인 요소였다. 벽체가 돔의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루넬레스키는 두 겹으로 된 이중 돔 구조를 창안했다. 돔 벽체 내부의 중심축을 오히려 비우고, 하중이 축 주변의 두 방향으로 분산되게 만들었다. 두 개의 돔이 서로 결구되어 구조적 안정성도 강화됐다. 돔 자체의 하중도 경감되었음은 물론이다.

둘째, 돔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조 흥예(비계)를 가설치해야 했는데, 피렌체 대성당의 경우 흥예 설치가 쉽지 않았다. 건물의 높이와 크기가 거대해 천문학적인 설치비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설치는 물론 공사 후 해체도 간단하지 않았다.

1

2



3

1 고전적 비례와 기하학적 질서를 담은 피렌체 보육원의 광장 회랑. (CC BY-SA) Warburg@Wikimedia Commons. **2** 피렌체 대성당 돔에 적용된 '생선 가시' 방식. **3** 브루넬레스키는 구멍 뚫린 그림과 거울을 활용해 원근법을 시연했다. ©BRUNELLESCHI and theRe-Discovery of Linear Perspective@maltaly.

브루넬레스키는 홍예 없이 허공 위에 벽돌로 돔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돔 하부의 가장자리 여러 지점에서 벽돌들을 수평과 수직으로 직각 교차시키는 '생선 가시' 방식으로 동시에 쌓아올렸다. 쌓아 올리다 보면 돔 표면이 소용돌이처럼 올라가 스스로 닫히게 된다. 이는 아시아와 에트루리아(고대 이탈리아)의 전통적 건축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피렌체 보육원의 반구형 돔 천장 구축에서 실험한 브루넬레스키의 생선 가시 기법은 피렌체 대성당 돔 작업에서 꽃피웠다. 또한 이중 돔 사이의 빈 공간에 내부 계단을 설치했다. 방문객들은 '생선 가시' 표면을 더듬으며 돔 벽체 내부를 관통할 수 있다.

건축을 넘어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창조하다

브루넬레스키는 자재를 벽체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 거대한 기중기 장치를 발명하기도 했다. 현장 석공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설계뿐 아니라 건축 실무도 장악했다. 시공 과정의 다양한 난제를 홀로 해결하고 몇 세대에 걸쳐 집단이 건설하던 대성당을 개인의 능력으로 탄생시켰다. 이는 혁명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 회화와 건축 분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가 처음 선보인 원근법은 피렌체의 젊은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려 대중들 앞에서 직접 원리와 효과를 시연하기도 했다. 원근법은 애초부터 기하학적 건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브루넬레스키의 건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둥과 보, 아치, 돔 등의 모든 요소는 다른 요소와 선을 맞춘다.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원근법은 공간을 조화롭게 만든다. 이처럼 브루넬레스키는 건축적인 전통을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며 공간 질서를 재편했다. 이는 21세기의 브루넬레스키를 꿈꾸는 도전가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영감을 준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Filippo Brunelleschi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엔지니어, 화가, 조각가. 1377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피렌체 세례당 출입문 장식 공모전에서 뛰어난 자질을 선보였으나 낙선하자 로마에서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다.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 제작을 의뢰받고 1436년에 완성했다. 르네상스 건축 양식 창시자 중 한 명이며, 원근법을 처음 선보였다.

이중 구조로 대형 돔 건설 설계부터 건축 실무까지 다양한 난제 해결 원근법으로 건축과 회화의 새 기틀 마련

건축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브루넬레스키의 역작,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CC BY-SA) Warburg@Wikimedia Commons

『88만원 세대』『불황 10년』 등 경제와 계층에 대한 통찰을 꾸준히 전해 온 우석훈 박사가 자신의 땀이 녹아 있는 육아 이야기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로 돌아왔다. '두 아이의 아빠가 내 정체성'이라고 적을 만큼 우석훈 박사의 삶은 이제 오롯이 아빠의 역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글=신연선 〈채널예스〉 기자/ 사진=한정구(AM12 Studio)

아빠 육아책 쓴 경제학자 우석훈 "두 아이의 아빠가 내 정체성"

유모차를 고르는 경제학자, 우석훈. 그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주말은 완전히 아이들과 함께 보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줄여야 했다. 물론 그 역시 일을 줄이는 선택을 내리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부터 조바심이 났다. 좋은 제안을 받으면 마음이 하루에 세 번 바뀌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 하면 안 되나?' 생각해 보거든요. 꼭 그때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라는 우석훈 박사의 말은 자신을 '보조양육자'라고 칭하면서도 '양육자'에 방점을 찍어둔, 자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빠'라는 사실을 단단하게 의식한 사람의 말이었다.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중이다.

학력 파리 제10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저서 『88만원 세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발로 뛰고 몸으로 체득한 '경제육아'

Q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떤가요?

아침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일어나요. 세수만 하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요. 그러면 10시가 조금 넘어요. 그때부터는 두세 시간 책도 보고, 글도 써요. 그렇게 오후까지 계속 있을 수 있으면 집에 있고요. 1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서 사람도 만나죠. 주말은 완전히 죽음이고요(웃음).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완전히 몸으로 때우는 시간이에요. 그나마 요즘은 두 아이가 둘이서 놀기도 하니까 조금 편해졌죠.

Q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는 육아에 관한 아주 꼼꼼한 기록입니다. '기록'의 의미가 많이 엿보이기도 하거든요.

영어 조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경황이 없었어요. 이 책은 틈나는 대로 겨우 메모해 둔 것들이에요. 육아일기는 쓸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웃음). 앉아 있을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둘째 백일 지나서야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지나 보니 메모해 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책을 쓰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하고 노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졌어요. 이대로 쓰면 두 권은 쓰겠더라고요. 많이 덜어냈어요.

Q 앉아 있을 시간도 없다, 육아의 현실이겠죠.

게다가 두 아이가 같은 남자 아이라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기저귀 떼는 방식도 다르고요. 보통일이 아니죠. 똑같이 하는데도 다르더라고요.

Q 제목에 우선 공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육아에 있어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간다'는 말이 참 절묘해요.

한 다큐에서 본 거예요. 평생 해녀로 사신 할머니가 나왔는데요.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끝에 나온 말이에요. 생활하는 입장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엄청나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있는 규모 안에서 먹고, 없으면 또 없는 규모 안에서 먹죠. 딱 두 배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지낼 만하면 유모차가 망가지고요.

Q 유모차부터 도시 문화까지 아우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 관점으로 본 육아, 생각할 부분이 많았어요.

한두 살짜리 아이에게 명품 브랜드 옷 입히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기억도 못할 때인데 말이에요. 그 아이가 커서 그 얘기해 주면 좋아하겠어요? 그 돈 그냥 주지(웃음), 할 거예요. 그러느라고 지금 돈이 없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의미도 없고요.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 영어 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만은 우리 식으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과외 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더라고요. 정말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 유치원 보낼 돈을 모아서 하와이로 몇 달 여행을 다녀오면 돼요. 그게 낫잖아요.

Q 육아 산업은 절대 안 망한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양육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육아 산업도 망해요.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90년대 말에 알았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줄고 산업이 위축될 거라고요. 고심하다가 럭셔리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도 단가를 높이고,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방식으로요. 90년대 말에 그렇게 이미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 럭셔리 전략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가격으로 차별화시키는 건 최근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모두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많아요. 돈은 벌기가 힘들지 쓰기는 쉽거든요. 저는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미 있게 쓰는 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인 거죠. 돈을 부수면 다시 안 모이거든요.

정말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 유치원 보낼 돈을 모아서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오면 돼요

Q 강하게 기억에 남은 대목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세상에 굶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양육자의 철학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진실이기도 하고요.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밥투정을 할 때 세상의 절반이 굶는다고 말하면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밥을 못 먹느냐고 되물어요. 설명을 해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죠. 그래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모두가 우리 같은 것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투정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거죠.

Q 식사 이외에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이 더 있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죠. 첫째는 최순실이 누군지도 벌써 알고 있어요.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묻더라고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 맛있는 걸 자기 혼자만 먹었다,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혼자 새치기했다, 얘기했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웃음) 하더라고요. 또 시장 놀이는 일찍부터, 세 살쯤부터 했어요. 놀이처럼 하면서 교육도 되고요. 반드시 경제 교육이 아니더라도 가게가 무엇이고, 돈이 무엇인지는 일찍 가르친 것 같아요. 돈은 진짜 빨리 알았어요.

당장 지금은 버틸 수밖에

Q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조양육자에 머물러 있어요.

보니까 아기 기저귀 갈 줄 아는 할아버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갈아봤어야 말이죠. 평생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본 거예요.

Q 그런가 하면 박사님은 '두 아이의 아빠가 내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아빠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주양육자는 아내예요. 다만 아내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더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지낼 때 본 건데요. 프랑스 엄마들은 출산 후 열 달이 지나도록 예전 몸매를 회복하지 못하면 좀 놀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아이를 더 돌보는 건 집착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아내보다는 제가 더 상황이 되니까요.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데 '내년에 하면 안 되나?' 생각해 보거든요. 꼭 그때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Q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워낙 한국 사회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어요.

제가 차를 없앴는데요. 따져보니까 차 유지비를 생각하면 딱 절반만 가지고 택시 타거나 하면서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차 없다는 핑계로 모임에 덜 나가도 되고요(웃음).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좋은 마음, 편안한 생각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흔들리며 사는 거고, 또 그런 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들이 육아에 시간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Q 모두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워낙 집에서 아빠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요. 조금만 더 해도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웃음).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책 읽어주는 게 체력적으로 죽도록 힘든 일일까?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요즘은 어린이집 가서 봐도 아빠들이 많이 보여요. 종종 있어요. 그런 아빠들이 결혼을 했겠지(웃음) 싶기도 하지만요. 책을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은 장인이 사위에게 권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참고하면 좋겠어, 유럽 스타일이래, 하면서요. 결혼할 때 예단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끼워 넣어도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장인이 사위에게 전쟁하자는 거냐(웃음) 하시더라고요.

2017 KBO리그 관전 포인트

3월 3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KBO리그)가 7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리그인 KBO리그는 올해도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있다.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가 열리는 2017 KBO리그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글=김식 〈중앙일보〉 기자(『약자가 강자를 이긴다』 저자)

준비하시라,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KIA의 봄은 뜨겁다

오프시즌을 가장 뜨겁게 보낸 팀은 KIA였다. 삼성 4번타자 최형우를 4년 총액 100억원에 영입했다. 확실한 4번타자가 없었던 KIA는 최형우를 중심으로 나지완·김주찬·이범호, 그리고 외국인 버나디나로 이어지는 단단한 타선을 구축하게 됐다. 또한 해외 진출이 유력했던 에이스 양현종도 KIA와 22억 5000만원에 1년 계약했다. 부상이 잦았던 윤석민과 김진우가 돌아온다면 KIA의 마운드는 더 강해진다.

KIA는 김기태 감독 부임 후 2년 동안 자유계약선수(FA) 영입보다는 내부 육성에 집중했다. 기존 선수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우승할 수 있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전략이었다. 2년 동안 젊은 선수들이 성장했고, 베테랑이 중심을 잡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덕분에 KIA는 지난해(5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태 감독은 "우선 홈에서 가을 야구(4위 이상)를 하는 게 1차 목표다. 우리를 우승 후보로 봐주시는 팬이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는 말이었다. 전국구 인기 팀인 KIA가 우승 가능권이라는 평가를 받자 3월 시범경기부터 많은 팬들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부산의 아들' 복귀… '엘롯기' 돌풍 기대

롯데는 2012년 팀을 떠난 '부산의 아들' 이대호를 KBO리그 사상 최고액인 4년 150억원에 영입했다. 일본에서 4년간 정상급 타자로 활약했고, 지난해 메이저리그 시애틀에서 뛴 이대호는 분명 롯데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롯데가 3루수 황재균을 잃었다는 점이다. 3할 타율에 20홈런을 때릴 수 있는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공백이 생겼다. 지난해 불펜 부진으로 고민했던 롯데는 3루 공백까지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조원우 롯데 감독은 "이대호가 복귀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5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간 LG는 삼성의 왼손 투수 차우찬을 95억원에 사들였다. LG에서 활약했던 잠수함 투수 우규민(4년 65억원)을 삼성에 내주긴 했지만 차우찬 영입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허프·소사·류제국에 이어 차우찬까지 합류한 LG 선발진은 KBO리그 최고 수준이다.

양상문 LG 감독은 "지난해 팀이 상승세를 탔다. 이제 틀이 잡힌 것 같다. 올해는 세밀한 플레이를 보강해 더 좋은 야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상문 감독은 지난해 노장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 이 과정에서 이병규(등번호 9)가 은퇴하는 등 큰 변화가 뒤따랐다. 외야수 채은성이 주전으로 도약하는 성과도 있었다.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하고 젊은 야수들이 성장한 LG는 올해 한국시리즈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야구팬들은 LG·롯데·KIA를 '엘롯기'로 부른다. 열혈 팬들을 많이 가진 이들 세 구단은 2000년대 초반 동반 부진에 빠졌다. 팬들은 이 현상을 '엘롯기 동맹'이라고 칭했다. KIA가 2009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면서 '동맹'은 깨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KBO리그 흥행을 좌우하고 있다.

'국대 베어스'에 맞설 팀은?

지난 겨울 대규모의 선수 이적이 이뤄지면서 KBO리그 각 구단의 전력 예측이 쉽지 않아졌다. 그러나 단 하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확실히 눈에 띈다. 2015년과 2016년 한국시리즈 우승팀 두산이다.

두산은 우승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최고의 외국인 투수 니퍼트와 연봉 21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보우덴과 에반스도 잡았다. 또한 2017년 야구 국가대표팀 28명 중 8명(포수 양의지, 투수 장원준·이현승, 내야수 오재원·김재호·허경민, 외야수 민병헌·박건우)이 두산 선수다. 그만큼 두산은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조화가 잘 이뤄진 팀이다. 힘과 투지, 기술과 경륜까지 갖춘 게 2017년의 두산이다.

두산의 목표는 현상유지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지난해 잘했던 선수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말이었다. 지난해 2위 NC, 3위 넥센, 그리고 '엘롯기'의 추격이 거세겠지만 두산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7년 KBO리그의 판세는 '두산 vs 9개 구단'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KBO리그를 뒤흔들 외국인들

감독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다. 올해 SK는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사령탑 출신 트레이 힐먼 감독이 지휘한다. 스케일이 큰 미국야구와 세밀한 일본야구를 접목한 그가 SK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힐먼 감독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가 9개 구단 감독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장정석 넥센 감독, 김한수 삼성 감독, 김진욱 kt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다. 김진욱 감독은 "선수들에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다. 즐거운 팀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막내 팀 kt를 김진욱 감독이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정석 감독과 김한수 감독은 40대 초보 사령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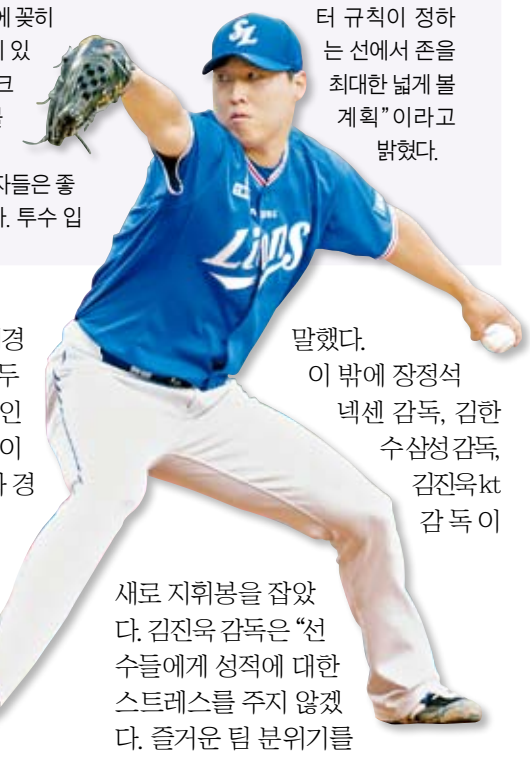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은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한다. 10개 구단 외국인 30명의 연봉 총액이 3113만5000달러(약 35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명이 새 얼굴인데,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 뛴 경험을 갖고 있다. 한화는 오간도(연봉 180만 달러)와 비야누에바(150만 달러)를 영입하며 강력한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NC도 맨십(180만 달러), 해커(100만 달러)와 스크럭스(100만 달러)에게 거금을 투자했다. 2017년 KBO리그에 등장한 외국인 감독과 비싼 외국인 선수들은 프로야구 시장의 성장을 의미한다.

스트라이크존 확대 … '타고투저' 완화될까

2017 KBO리그 스트라이크존이 넓어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스트라이크존은 규격화 돼있다. 존의 너비는 홈플레이트 좌우가 기준이고, 높이는 타자 가슴(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의 중간점)부터 무릎 아래까지다. 그러나 실제 판정은 리그별로, 심지어 심판 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 심판들은 타자 가슴에 가까운 높은 코스와 무릎 밑의 낮은 코스를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메이저리그 심판들의 스트라이크존은 대체로 정사각형에 가깝다. 반면 한국 심판들은 타자 바깥쪽 코스에 후하다. 대신 높낮이에는 인색한 편이어서 너비가 넓은 직사각형 형태의 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도 상하좌우 네 모서리에 꽂히는 공을 볼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스트라이크존이 세계에서 가장 좁다"는 불평이 나왔다.

스크라이크존이 좁으면 타자들은 좋은 공만 노리고 타격하게 된다. 투수 입장에서는 힘으로 타자를 압도하지 못하면 승산이 떨어진다. 제구력 위주의 투수는 고전하기 마련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젊은 투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타고투저로 인해 KBO리그에서는 다득점 야구가 일상화됐다. 공격적인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투수전의 묘미가 사라지고, 경기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빠른 처방은 스트라이크존 변경(확대)이다. 김풍기 KBO 심판위원장은 "WBC 결과와 관계없이 '스크라이크존이 좁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올 시즌부터 규칙이 정하는 선에서 존을 최대한 넓게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스페셜티 커피와 빵이 맛있는 곳, 프릳츠

1

2

3

서울 계동 본사 바로 옆 아라리오뮤지엄(옛 공간 사옥)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다. 상호명은 프릳츠 커피 컴퍼니! 서울 마포구에서 커피와 빵이 맛있기로 소문난 프릳츠 커피 컴퍼니의 2호점이다. 프릳츠 커피 컴퍼니는 바리스타, 로스터, 커핑(Cupping) 전문가, 그린빈 바이어 등 5명의 커피 전문가와 베이커리 셰프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인테리어 콘셉트는 1, 2호점 모두 한옥과 빈티지. 서양에서 건너온 커피를 한국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커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곳은 해외 유명 바리스타 및 커피 전문가들과 자주 교류한다고 했다.

실력자들이 모인 곳답게 커피와 빵맛 모두 훌륭하다. 원두는 김병기 대표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을 직접 다니며 다이렉트 트레이드(Direct Trade)로 들여온다. 지역마다 맛있는 때를 캐치해 최상의 원두로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우리 커피는 '제철 원두'를 사용해 맛이 좋다. 신선한 원두는 과일의 산미(신맛과 기분 좋은 단맛)를 지닌다"라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빵 역시 입소문이 자자하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크루아상'으로, SNS에는 '#인생_크루아상'이라는 태그가 달릴 정도란다. 이 밖에도 출출한 날 더욱 생각나는 '소시지 빵', 페이스트리 위에 매일매일 베이커리 셰프가 원하는 과일을 올리는 '실장님 스페셜' 등 모든 빵이 먹음직스럽다.

4

5

6

프릳츠에서는 다양한 원두와 굿즈도 판매한다. 서울 시네마·잘 되어가시나·올드독 등 원두 네이밍도 개성이 넘친다. 이 밖에도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카페 로고가 박힌 티백 커피와 드립 커피, 아이폰 케이스, 배지, 에코백, 머그잔 등 다양한 소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1,6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카페 내·외관. 2,5 과일이 지닌 기분 좋은 신맛과 단맛이 나는 프릳츠 커피. 3 소시지 빵. 두툼한 소시지가 입맛을 돋운다. 4 실장님 스페셜. 페이스트리 위에 황도가 올라갔다.

프릳츠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83
영업시간 10:00~21:00(연중무휴)
문의 02-747-8101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전음료 20%할인
2017년 4월말까지

문화 책갈피

죽은 듯 잠잠했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매화가 해사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색채의 계절, 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에세이들을 소개한다.

봄에 읽는 에세이 베스트

서울 건축 만담
저자 **차현호, 최준석** | 출판사 **아트북스**

글을 잘 쓰는 두 건축가가 쓴 에세이. 저자들은 "건축과 도시 이야기를 빙자한 신변잡기 에세이"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면적 605㎢, 1200만 명이 복작복작 살아가는 서울에 관한 다양한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서울을 안내하는 두 건축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건축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저자 **사노 요코** | 출판사 **서커스**

이 책이 주는 발랄함은 주로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서 온다. 그들의 찌찌하고, 허세 만만하며, 연애에 사족을 못 쓰고, 어리석으며, 때로는 독선적인 삶에서 묘한 감칠맛이 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인생에 대한 비장감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독자들을 어이없게 만든다. 그리고 그 어이없음 뒤에 삶에 대한 따듯한 시선과 위로를 남긴다.

밤이 선생이다
저자 **황현산** | 출판사 **난다**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 황현산 선생의 생애 첫 산문집이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발표했던 여러 매체 속 글 가운데 여든 편의 글을 책으로 엮었다. 산문을 읽다 보면 고희(古稀)를 넘긴 선생의 연배를 잊게 된다. 어떠한 미사여구 없이 단문으로만 문장이 이뤄져 있어 힘이 느껴진다. 뾰족하고 단단한, 때로는 온화한 글들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과도 잘 어울린다.

모든 요일의 여행
저자 **김민철** | 출판사 **북라이프**

광고대행사 TBWA KOREA의 카피라이터가 쓴 여행 에세이다. 카피라이터가 저자인 만큼 글과 사진에서 남다른 감성이 느껴진다. 다른 여행 에세이와는 달리 목차가 특정 지역이 아닌 여행의 목적으로 구성됐다. '마법의 질문을 가지는 여행' '유용한 여행 무용한 여행' 등과 같은 식이다. 여행이 떠나고 싶은 날, 조금은 느리게 인생을 살고 싶은 날에 읽으면 좋을 것 같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ere are five people glancing in the mirror and they have emotional expressions. Two of the boys have very emotional faces and grab their own faces. Three girls have various expressions. It seems busy as these girls touch up their make-up in the mirror. Also, all of people in this picture wear vivid colored T-shirts. The group of five people is made up with a great variety of people.

Opinion Question 유형

What do you usually do when you are free on a business trip? Also, how much free time do you have on a business trip? Please tell me the details.

I don't really have a lot of spare time when I am on a business trip. Other than meeting time with our partner company and meal time, there really is no other free time. But when I so get some personal time, I look around the park or historic sites around that area. I also love to visit museums or famous buildings. When I went to Frankfurt last summer, I was excited about so many famous buildings which are all within the city. I could enjoy Slovenly Peter museum there. If I don't even have that kind of time to spare, I go into the hotel's gift shop and buy souvenirs for my child.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미술관 산책

186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귀금속 세공사이자 조각가인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구스타프 클림트. 몽환과 관능으로 유명한 그의 그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클림트 인사이드〉展은 그의 작품을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했다.

~2017.04.18. Tue

KISS, 1907-1908

1 Emilie Floge, 1902 **2,3**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전시장 내부 전경 **4** Portrait of Helene Klimt, 1898 **5** Wasserschlangen II (Freundinnen), 1904

성수 S-FACTORY 1522-1796
www.klimtinside.com

1

2

3

클 림 트 인 사 이 드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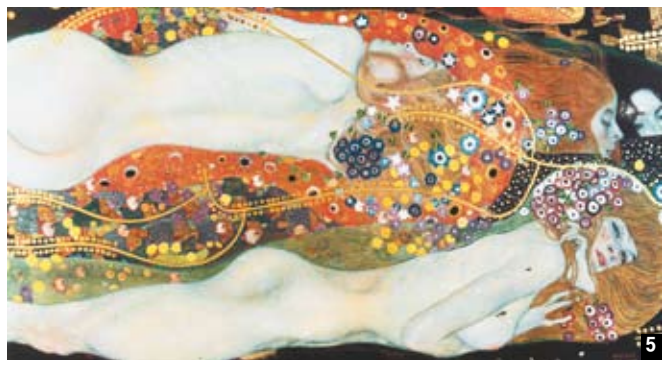
클림트 여섯 개의 황금빛 기억

문화 예술의 메카로 떠오르는 서울 성수동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삶과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클림트 인사이드〉展이 열리고 있다.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했던 클림트의 섬세한 황금빛이 현대적인 공간 속에서 극대화돼 그가 추구했던 영원성을 구현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걸려 있는 클림트의 그림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프로젝션의 빛과 일렉트로닉 음악이 결합한 공간에서 생생하게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

총 260여 점의 클림트 작품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이번 전시는 ▶End of Century: 합스부르크의 황혼 ▶Ver Sacrum: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Women: 순수와 퇴폐의 공존 ▶Stoclet Frieze: 생명의 나무 ▶Later Colors: 고요한 사색, 새로운 색채 ▶Kiss: 전 세계인의 환상이 된 한 장의 그림 등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있다. 관람객들은 세션을 따라 관람하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클림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 또한 라이트 아트와 모션 감지 기능으로 클림트의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셀터 체험존, 가상현실(VR) 체험존, 명화 합성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클림트 인사이드〉展에서 직접 듣고, 보고,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원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감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4


5